

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14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고경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 인구감소 대비가 시급하다고 했고, 김석환 의원은 백기 계약 의거를 이끈 독립지사 최태환 선생을 조명하자고 했다. 이어서,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철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안건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현) 소관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2,391억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1,967억 1,232만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299억원을 승인했고, 2024년도 예산은 77개 항목을 조정하여 80억 3,615만원을 확정하고 제2차 정례회를 종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원 부과

부안군은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871건, 1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였거나,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제1기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하여 제2기분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납세액(2월~12월)의 공제율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내년 1월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이후에는 연세액 공제율이 3%로 축소 조정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고향사랑기부금 5억 돌파

출향인·공공기관·농축협 등 응원 릴레이, 교차기부 효과 커

정읍시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 5억원을 돌파했다.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인 5억원을 조기 돌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4일 기준 시의 모금실적은 4,309건 5억1,000만원이다. 출향인들의 열렬한 참여 의지와 공공기관, 농·축협, 기업 등의 꾸준한 기부와 응원 릴레이, 자매도시의 상호 교차 기부가 큰 성과를 이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읍의 한우, 생화차, 쌀 등 양질의 답례품을 선호하는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현재 조성 중인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된다. 시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 상·하반기 동안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27건의 아이디어를 수렴

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2개의 사업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사업'이다.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은 7개 권역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이 협력하는 공동보육 시스템으로, 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꾸준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 어린이집 간의 보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일관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사업'은 상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체육관 1층을 활용해 파티룸, 포토룸, 파우더룸 등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티룸은 생일파티나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포토룸은 창의적인 사진작업이나 소셜미디어 공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구성할 예정이다. 파우더룸은 청소년들이 메이크업 체험 등을 통해 자기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특별한 코너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공간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된 특별한 장소임을 표시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정읍시 제공)

부안군, '마을 찾아가는 동지 팔죽 서비스' 실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서 53개 전체 마을 전달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13일 백산면 전체 주민 대상으로 '마을 찾아가는 동지 팔죽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을 찾아가는 동지 팔죽 서비스'는 민중 명절 동지를 맞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 먹거리를 통해 주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백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관심)가 지역에서 생산한 팔죽 찹쌀을 재료로 53개 전체 마을에 전달할 수 있는 양의 팔죽을 조리했으며, 부안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백산면 주민교류 활성화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2~13일 백산면 전체 주민 대상으로 '마을 찾아가는 동지 팔죽 서비스'를 실시했다.

사업 일환으로 협력해 진행했다. 마을회관에서 팔죽을 받은 주민들은 환한 표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팔죽을 준비해 주시니 너무 고맙다. 잘 먹고 겨울 건강하게 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병원성 AI 차단 '총력'

용계동·정우면 가축시장 거점소독시설 설치, 24시간 비상상황 유지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만경강 야생조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전북, 충남 등에서 총 10건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이중 전북에서 7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영과동 천변에서 포획된 원앙오리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가금농가에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 2월 29일까지 4개소, 철새도래지인 동진강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순정축협 공동방제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용 소독방제차량을 총 동원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스피드킬·케이투·이퀀플러스와 같은 방역물품을 지역 내 가금농가에 공급했다.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서 닭을 자제하고, 가금농장 출입과 가금사육 농가의 모인 또한 자제해야 한다. 또한 가금 사육농가는 시에서 배부한 방역소독약품으로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차량 출입 시 철저한 소독, 축사 내 전용장화 착용 등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에서 AI 확산세가 가팔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방역으로 지역 내 농가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고창군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67명을 오는 22일까지 각 수행기관에서 모집한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3년 대비 250여명의 사업량이 증가하며, 사업비는 111억원으로 22억원이 증액됐다. 고창군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창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고창군 노인복지관,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4개의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로 40개 사업분야가 있으며,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공익형·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창시니어클럽, 고창군 노인복지관,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택성 고창군수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알찬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이루어졌고,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해 총 3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덕)에서는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5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8,168억원으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한편,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환 의원의 '세계문화유

산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이경신 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지난달 27일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는 오세환 의원의 '고창군 미담시문학관 명칭 변경 및 민간위탁 동의안 철폐 요구'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또한 27일 진행된 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차남준 의원은 △초서문화관 활용 방안과 △구 신왕초등학교(폐교) 시설 및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임중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방안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고창군 소금 활성화에 대한 고창군의 방안을 질의했고, 조만규 의원은 △고인돌공원 주변 지방공원 조성과 △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